라이브 말씀 줄 붙잡기

(신명기 27:1~10)

1.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2.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3.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4.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 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5.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6.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7.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8.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라이브 말씀 줄 붙잡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라이브 말씀 줄 붙잡기'
말씀 줄은 말씀 줄인데 무슨 말씀 줄입니까? 라이브(생방송) 말씀 줄인데 라이브로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 말씀 줄을 붙잡고 사는 상태가 구원 받은 상태인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제목이나 줄거리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장면만 기억이 나는 액션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도망가는 악당들을 좋은 편의 사람들이 저지하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악당들이 도망가기 위해 준비해 놓은 커다란 수송용 비행기의 몸체가 총에 맞아 구멍이 났는데 하필이면 연료통이 있는 부분입니다. 구멍이 나서 압력 때문에 연료가 뿜어

져 나오는 상태로 범인들은 이륙을 강행합니다. 마치 호수의 물처럼 끊임없이 연료가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아직은 연료가 많기에 새는 연료를 감안해도 한참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편의 사람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에, 주인공이 미소를 지으면서 라이터를 꺼내더니 땅에 쏟아진 연료자국이 시작된 부분에 불을 붙여버리자, 밤하늘에 불이 쏜살같이 타오르며 공중에 불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 불줄기가 비행기를 쫓아가서 연료통까지 들어가 폭발해버리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구원은 저주로부터의 건져짐입니다. '저주로부터의 건져짐'은 마치 불줄기가 하늘의 비행기 연료통 안으로 들어가듯이, 우리 마음이 이 땅에서 벗어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마음이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는 이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먼저 더 많이 좋아하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범죄가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구원은 세상에 살지만 마음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고백하는데 '믿음으로 저주에서 빠져나온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데 롬10: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십니다. 즉 믿음은 말씀이 마음에 기억되고 있는 상태이고, 마음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교회에 있을 때, 예배드릴 때, 성경공부를 할 때에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밥 먹을 때, 직장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시장에 있을 때 등 언제든지 마음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빠져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모든 말씀의 총화이시고 완성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완성인 사건조차도 기록된 문자를 통해서 받게 되고, 기록된 문자를 근거로 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문자를 기억하는 것인데 이게 참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내 마음이 기억하게 될 때에 그것도 특별히 복지에서 살아가는 것이 선민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삶의 현장에서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은 신비스럽게도 문자의 차원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그 옛날 모세와 주님과 사도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 때에 모세에게 예수님에게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머리위에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라이브로 말씀하시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성경공부를 할 때나 교회에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삶의 현장에 나가서 활동할 때에,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한 대비를 이루며 이 효과가 더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라이브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삶의 현장에서 나는 분명히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라이브로 말씀하신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사람을 마주보고 대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너 사람이 모여 있다면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게 됩니다. 마치 비행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료가 불줄기를 이루듯이, 말 줄기가 나오고 있는 동안에는 역으로 그 사람의 입과 얼굴을 쳐다보게 됩니다. 영화 장면에서 땅에 쏟아진 연료가 시작되는 부분에 라이터를 대므로 불줄기가 올라간 것처럼, 이 땅에 주어져 있는 기록된 말씀을 내가 삶의 현장에서 기억할 때에, 내 마음은 그 문자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갑자기 라이브로 말씀하시는 사건으로 변하면서, 내 마음은 그 라이브 말씀 줄기를 따라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구약에서조차도 끊임없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삶의 현장에서 마음에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문자를 내가 기억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고 내 삶의 현장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의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장에서나 직장에서 말씀을 기억한다면 시장은 하나님께서 라이브로 말씀하시는 장소가 되고, 그 시장에서 내 마음은 라이브 말씀줄기를 따라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없어진 자리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서 복지의 삶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데, 이러한 전제를 놓고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해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 오셨고, 그 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은 다가올 십자가, 이루어진 십자가를 향하고 있으므로 십자가 하나를 기억하게 되면 말씀 전체를 기억하는 것이 됩니다. 말씀 전체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내가 직장에서 시장에서 가정에서 사장님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지금 네가 처한 세상에서 죽은 자다'라고 라이브로 들려오는 이 말씀줄기를 붙잡고 우리의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고 복지의 삶이 됩니다.

이러한 '복지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라이브 말씀줄기를 붙잡으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두 가지 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팔레스타인 남북을 기준으로 볼 때 가운데 쯤 세겜 땅이 있는데 거기에 200m정도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 북쪽으로 에발 산이 있고 남쪽으로 그리심 산이 있습니다. 에발 산은 높이가 940m정도이고 그리심 산은 840~850m정도 됩니다.

이 정도 높이는 강릉에서 바라보는 대관령 높이와 같습니다. 특별히 저주를 선포하게 될 에발 산에 돌비석을 세우게 하시고, 사람의 정을 대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시는데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염려가 또 발동이 되시는데, 요단강을 건넌 자들에게 '복지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에발 산에 돌비석을 세우고 돌단을 쌓는다.'는 것이 뜻하는 바가 복지의 삶을 복지되게 해주는 핵심이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에발 산은 바위산이고 그리심 산은 숲이 우거진 산입니다. 에발 산에서는 저주를 선언하시고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축복을 선언하신 그리심 산보다 저주를 선언하시는 에발 산이 영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띕니다.
에발 산에 광개토왕비 같은 큰 돌을 가져다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글씨를 새기도록 하시는데 궁금합니다. '석회'는 비바람이 불게 되면 금방 지워집니다. 그런데 석회를 바른 부분을 뚫고 바위까지 새겨야 하는데 굳이 석회를 바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자는 석회를 바름으로 글씨가 잘 보인다고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돌 위에 얼마나 두껍게 석회를 바르겠느냐고 하는 것도 문제이고, 발라봐야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데 일시적으로라도 잘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면, 더군다나 940m 산 위의 바위가 아무리 크다고 한들 그게 아래에서 보이겠습니까? 또한 에발산 밑에 머물러 사는 것도 아니고 각처에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고 에발 산에 돌비를 세운 뒤에는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떠나야합니다.
강릉 시내에서 대관령 산 능선은 보이지만 거기에 돌을 세운다고 해서 돌에 새긴 글씨가 보일 수가 없습니다. 즉 이것은 글씨를 보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애굽의 사람들이 건축을 할 때에 특별히 석회를 바르는 공정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석회가 비바람에 다 지워지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을 보면 모세의 명령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진입하여 아이 성과 벧엘의 두세 개 성을 점령한 뒤에 이 일을 행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돌을 가져다가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새기면 그것을 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렇게 해봐야 얼마가지 못한다는 염려가 있었을 텐데, 바로 지워지게 될 염려를 목적으로 이렇게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복지는 어떤 곳이냐? 지금은 모세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말씀은 돌에 새기지 않았어도 법궤 안에 안치된 돌판에 십계명이 기록이 돼 있고 파피루스나 양피지에도 말씀은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돌비에 석회를 바르고 기록하게 하신 것은, 복지를 시작하게 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걱정은 말씀을 염두에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농사를 짓고 땅을 제비 뽑을 것인가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

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지워지면 안 된다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시청각 교육적으로 돌비에 석회를 발라서 보여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 산에 돌비석이 선 것처럼, 말씀이 마음에 기억되지 않으면 곧바로 저주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에덴동산은 낙원이었지만 선악과를 세우심으로 저주의 바다 위에 떠 있는 낙원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자 에덴의 밑창이 없어지면서 저주의 바다에 빠지게 된 것처럼 복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 산에 돌비를 세우신 이유는, 복지의 삶을 살아갈 때에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직장에서 일할 때나 시장에서 일할 때나 밭에서 일을 할 때 마음이 기억하지 않으면, 복지 밑창이 열리면서 준비되어 있던 저주로 빠질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상징적 퍼포먼스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복지의 삶의 첫째 조건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기억돼서 삶의 현장에서 유지될 때에, 하나님의 라이브 이벤트가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삶의 현장에 처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면서, 내 마음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의 물줄기를 따라, 하나님의 입을 지나서 하나님의 인격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의 인격이 만나는 것이 구원이고, 이 만남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복지의 삶은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돌비를 세우고 나서 사람의 정이 닿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들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는데 이게 바로 복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지의 삶은 들어가서 땅을 얻어 농사가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땅에 속한 복을 주실지라도 땅에 속한 복을 받기 때문에 복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복지의 삶은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내가 인공적으로 손을 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 기업이나 가정의 상황을 내가 내 힘으로 개선시키겠다는 의욕으로 손대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손댄 내가 죽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고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손을 대지 마세요. ‘손대지 않는다.’는 것이 ‘손 안 댄 돌로 번제단을 쌓는다.’는 것이고 ‘말씀 줄을 붙잡고 세상을 등지라’는 것이고 ‘말씀 줄을 붙잡고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은 것 같아도 거기에 붙들리지 말고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라는 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이고, 말씀 줄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서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저주를 선포하려는 에발 산꼭대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인데, 왜 축복하는 그리심 산에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주의 삶이되기 때문이고, 복지와 에덴동산은 저주의 땅 위에 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이 땅으로 내려오면 저주의 문이 열리게 됩

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모든 말씀의 총화이고 완성이므로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또 사건으로 말씀을 만들어 주시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사건이고 부활하신 것이 사건이고 승천하신 것이 사건이고 이 사건들이 말씀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료가 불줄기를 이루듯이, 하늘과 땅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의 물줄기가 형성되는 것처럼 줄기가 형성되므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3: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누가 너희 마음을 꾀어서 너희 마음이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못 보게 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내 삶의 현장에서 기억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너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부름 받은 선민이 되게 하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가장 좋은 쪽으로 구분되고, 구분되고 구분되어서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길을 따라 내게로 올라오라고 부르시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끌고 올라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환경에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번제로 세상에 대해서 죽고,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화목제가 뜻하는 바대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면서 만족과 기쁨으로 마음을 완전히 채우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생활을 할 때에 제일 먼저 걱정해야 될 것은, 마음이 말씀의 완성이신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석회를 바른 바위에 쓰인 율법이 뜻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은 직장에서 어떻게 승진하고 성과를 올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을까 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을 잘 기를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가족들 앞에서 말씀의 총화이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잊지 않을까를 걱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합니다. 승진, 돈 버는 이 따위 것들은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버는 현장에서 내가 기억해야 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을지 이것 하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살다보면 비바람이 몰아치듯이 이런저런 사건이 몰아치며 내 마음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씻어버리고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곧바로 저주로 빠져들게 되고 그 증거로 이 세상 것으로 배 부르려고 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12살 된 소녀가 너무 배가 고파서 개똥 속에서 호박씨를 꺼내어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 배 부르려는 삶, 대학자가 되어서 배 부르려는 삶, 인기 얻어서 배 부르려는 삶은 저주의 삶으로 아직도 세상에서 헐떡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 받은 복지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세상의 환경에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에 대해 죽어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하늘로 올라가려면 세상에 대해 죽을 각오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으로 완전히 배부른 상태에서(환경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상태이지만) 기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말씀의 완성이신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된 복지가 주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라이브 말씀 붙잡고 구원과 복지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염려하는 백 가지, 천 가지, 만 가지 염려를 뒤로 제치고 오직 한 가지 삶의 역풍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십자가 예수님을 잊지 않을까를 생각하며 사는 참 선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